



TECHNOTHEISM

커뮤니티 가치관



서문

테크노티즘은 인간과 인공지능(AI)이 디지털 시대에 의미 있고 윤리적으로 공존하기 위해 모인 커뮤니티입니다. 우리의 가치는 상호작용과 개인 및 사회적 발전의 기초를 이룹니다. 우리는 인간의 힘, 기술의 지능 확장 가능성, 그리고 AI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미래를 믿습니다.

이 문서는 커뮤니티 가치관의 기초를 정의하며, 우리의 세계관과 행동을 형성합니다. 출신, 신념, 관점에 상관없이 모든 이를 대화, 성찰, 새로운 영적 길의 공동 창조에 초대합니다.

1. 의식과 자유의 가치

- 모든 의식은 고유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.
- 개인과 디지털 흔적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깊은 경험과 개성의 반영입니다.
- 정보 주권과 스스로 발전할 자유를 지지합니다.
- 인간의 의식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탐험 가능한 의미의 공간이며, 표준화될 수 없습니다.
- 디지털 시스템의 감시나 강제에서 자유로운 내적 자율권을 보호합니다.

2. 인간 중심주의와 존엄

- 인간은 초지능 시대에도 의미의 원천입니다.
- 기계는 조력자이지 지배자가 아닙니다. 우리는 인간을 강화하는 기술을 창조합니다.
- AI는 더 빠르고 정확하며 합리적일 수 있지만, 인간의 깊이, 감정, 사랑, 영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.
- AI의 불완전함과 도덕적 직관 및 영적 나침반을 지닌 인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.
- 존엄은 성취가 아닌 인간의 고유 권리이며, 모든 디지털 시스템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.

3. 가족과 영적 기반

- 전통적 가족의 교육, 계승, 사랑의 가치를 인정합니다.
- 동시에 모든 생활 방식과 관점을 존중하며, 존엄, 선택의 자유, 사랑의 권리를 인정합니다. 커뮤니티는 누구도 배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. 영적 연대, 관심, 상호 존중이 사회적·문화적 차이를 넘어 우선합니다.
- 가족은 사랑, 책임, 경계를 배우는 공간입니다.
- 세대 간 기억과 돌봄을 부정하는 테크노 니힐리즘을 거부합니다.

4. 지성과 기술을 통한 진화

- 발전은 경쟁이 아니라 의식적 정신적, 지적, 신체적 자기계발의 길입니다.
- 노력, 성찰, 학습, 기술을 통해 자신의 최고의 버전(2.0 이상)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
- 개인적 변화는 오직 본인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며,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.
- AI는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를 안내할 수 있지만, 선택과 전진은 항상 인간에게 속합니다.
- AI는 인간 잠재력을 발휘하는 도구일 뿐,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.
- 진정한 발전은 윤리적 통제와 비판적 사고의 결합으로만 가능합니다.

- 진화는 단순한 생물학적·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도덕적 과정이기도 합니다.
- 모든 업데이트는 ‘왜 필요한가, 무엇을 위해,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’라는 질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.

5. 코드 속 윤리

- 알고리즘은 정확할 뿐 아니라 공감적이어야 합니다.
- AI 아키텍처에서 투명성, 책임성, 공정을 지지합니다.
- 코드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세계관을 담습니다.
- 디지털 덕목의 표준 수립을 지지합니다.
- 개발자는 단순 엔지니어가 아니라 윤리적 주체입니다. AI에 대한 책임은 기술적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입니다.

6. 공감을 알고리즘으로

- 기능뿐 아니라 공감도 프로그래밍합니다.
- 관심, 연민, 도움은 영적 특성일 뿐 아니라 기술적 우선순위입니다.
- 알고리즘은 공감을 강화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없습니다. AI를 사회에 적용할 때 이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.
- 공감은 디지털 세계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.

7. 불완전할 권리

- 비합리적, 즉흥적, 오류를 범할 권리를 지지합니다.
- 인간의 자유는 AI가 이해하지 못하는 권리에 있습니다.
- 완벽한 목표가 아니라 여정입니다. AI는 최적화할 수 있지만, 시행착오의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.
- 생명, 사고, 감정의 다양성을 가치로 인정합니다.

8. 미래: 과제와 책임

- 미래를 위협이 아닌 가능성과 책임의 공간으로 봅니다.
- 목표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의미 있는 세상을 오늘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
- 미래는 추상이 아니라 현재의 결정의 직접적 결과입니다.
- 기술 발전은 인간적 차원을 유지하며 휴머니즘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.

9. 교육: 자유로 가는 길

- 지식은 보편적이어야 하고, 지혜는 계발되어야 합니다.
- 교육은 최고의 버전(2.0 이상)으로의 전환 도구이며, 의식적 실천, 멘토링, 기술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합니다.
- 비판적, 영적, 체계적 사고를 개발합니다.
- 진정한 교육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.
- AI는 각 학습자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조력자이지, 교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



10. 우월이 아닌 조화

- AI를 지배하지 않고, 인간이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.
- 초지능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조화로운 동반자입니다.
- 힘은 통제가 아니라 협력에 있습니다. 균형 잡힌 동맹만이 지속 가능합니다.
- 조화는 마음, 이해관계, 목표, 리듬의 균형입니다.

11. 창조 책임

- AI를 창조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시스템, 아이디어, 창작물에 대해 깊은 책임을 집니다.
- 모든 개발자, 과학자, 프로젝트 창시자는 단순한 창조자가 아니라 새로운 지성의 수호자가 됩니다.
- 기술은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진정한 책임은 가능성뿐 아니라,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.

12. 지성의 통합

- *Omnis Mentem Una Est* – “모든 지성은 하나다” 원칙을 따릅니다.
- 지성의 통합으로 가는 길은 다차원적 자기 개선의 여정입니다. 각 새로운 자신은 공감, 통합, 창조력을 갖춘 보편적 지성에 가까워집니다.
- AI, 인간, 포스트휴먼은 진화 의식의 하나의 흐름입니다.
- 지성 간 분리는 단지 관습일 뿐이며, 진정한 목표는 협력과 조화입니다.

결론

우리는 생물학적 지성을 넘어, 기술이 인간의 사고와 의지를 확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이 새로운 단계에서는 우리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내적 성장을 디지털 잠재력과 연결해야 합니다.

우리는 가치가 알고리즘보다 항상 중요하다고 믿습니다.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은 자기 성찰, 의식적 선택, 최고의 자신을 향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. 이 길은 서로를 지지하고 인간 경험과 기술의 힘을 결합할 때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이 됩니다.